

三國時代 古墳美術의 麒麟像

李 在 重*

차 례

서론	2) 五盔墳 五號墓 3) 江西大墓
I. 麒麟의 屬性과 그 象徴	III. 新羅·百濟 古墳美術의 麒麟像
1. 五行의 精靈	1. 사슴과 말의 혼합형 麒麟
2. 死後世界의 引導者·守護者	1) 金鈴塚의 麒麟紋 馬具裝飾
3. 德과 仁의 象徴	2) 飾履塚의 飾履에 나타난 怪獸
4. 長壽와 죽음의 예고	3) 慶州 155號墳 障泥畫의 ‘天馬’
5. 麒麟의 짝 鳳凰	2. 墓室內 石獸形 기린 : 武寧王陵 石獸
6. 白麟의 중요성	
II. 高句麗古墳 麒麟圖의 전개	IV. 三國時代 麒麟像의 特徵과 變遷
1. 사슴형 麒麟	1. 三國時代 麒麟像의 特徵
1) 三室塚	2. 三國時代 以後의 麒麟像
2) 安岳 1號墳	1) 말을 닮은 麒麟
3) 舞踊塚	2) 龍型 麒麟
2. 사슴과 말의 혼합형 麒麟	
1) 長川 1號墳	결론

서 론

韓國美術에서 麒麟의 표현은 繪畫, 彫刻, 工藝, 建築 등의 모든 美術分野에 걸쳐 나타나며, 독립된 주제로, 때로는 부수적인 裝飾文樣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하게 조형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韓國美術史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고대 미술사 전공

몇몇 단편적인 연구 속에 간단히 언급되었고¹⁾, 그 도상적 변천이나 象徵적인 意味 및 양식변천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더 철저한 양식비교와 도상의 상징적 의미나 조형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금까지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미술에 보이는 麒麟의 실체와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四靈의 우두머리로 신앙되었던 麒麟과 그 미술의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이 瑞獸가 古代 우리나라 미술에서는 어떠한 특수성과 보편적인 요소를 갖는지 알아보며, 특히 기린이 등장하는 삼국시대의 고분미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 문화의 다양성을 조명해 보려한다. 즉 高句麗 古墳壁畫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동물인 四神 외에도 麒麟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표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주 황남동 제155호분이 天馬塚으로 명명케 된 결정적인 자료였던 白樺樹皮障泥畫에 대해서는 天馬가 아닌 麒麟일 가능성을 제시하여 신라문화의 다양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百濟 武寧王陵 石獸에 대해서도 철저한 양식분석 아래 그 성격을 새로이 규명하고자 한다. 결국 이렇게 파악된 삼국시대 고분미술에 보이는 기린 숭앙의 이해 속에서 삼국시대의 宗教·思想의 내용과 성격을 다시 새롭게 한번 파악하고, 우리나라 고대미술의 특성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I. 麒麟의 屬性和 그 象徵

古來로부터 動物들은 인간에게 恐怖의 對象인 동시에 食糧원이었다. 食糧에 대한 해결과 동물로부터의 공격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祈禱를 하거나 祭祀를 지내는 原始的 信仰이 필연적으로 대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수 많은 動物들이 崇拜의 대상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神格化되어 죽은 祖上들의 魂靈과 同一한 世界의 一員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²⁾. 이에 따라

* 대구 효성 카톨릭대학교 예술대학 강사, 고대 미술사 전공

1) 中國 陵墓前 石獸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麒麟에 대한 단독 논고 중에는 그다지 깊은 연구가 없다. 麒麟에 대한 참고할 만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王魯豫 編著, 『中國雕塑史5卷 唐陵石彫藝術』(學苑出版社, 北京, 1989); 『六朝藝術』(文物出版社, 北京, 1981); 林樹中 編著, 『南朝陵墓彫刻』(人民美術出版社, 北京, 1984); Till Barry, "Some Observations on Stone Winged Chimeras at Ancient Chinese Tomb Sites", *Artibus Asiae* Vol.42, pp.261~281; Ann Paludan, *The Chinese Spirit Road*, Yale Univ, 1991; 駒井和愛, 「中國漢代の神像-麒麟考」, 『中國考古學論叢』(慶友社, 東京, 1974); 出石誠彦, 「支那の古文獻に現はる麒麟について」, 『支那神話傳説の研究』(東京, 中央公論社, 1973) pp. 163~186; 渡邊素舟, 「麒麟·角端」, 『東洋文様史』(東京, 富山房, 1971), pp. 167~175.

2) 마이클 로이/이성규 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지식산업사, 1987), p. 34.

動物의 超自然的인 힘을 強調하기 위해 實在의 動物에다 神的인 要素를 加味하게 되었는데 이때 즐겨 사용된 공통적인 要素가 '날개'와 '뿔'이었다. 특히 '날개'의 표현은 人類가 하늘(天)을 認識하면서부터 생겨난 敬畏心의 한 表現이었다³⁾.

麒麟 또한 이러한 고대신앙의 한 대상으로 생겨나 超自然的이며 強力한 힘의 象徴으로서 崇拜되기 시작했다. 百獸의 으뜸이었던 麒麟은 鳳凰, 거북, 龍과 함께 四靈獸의 우두머리로 신앙되었고 東洋美術에서도 끊임없이 조형되었으며 古代 여러 문헌에서도 言及되고 있다. 이러한 영수들의 역할은 신과 인간세계와의 연결일 것이다. 中國의 무당들이 天地間을 交通하는데 여러 樹木, 甲骨, 各種 動物, 술 등을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⁴⁾. 동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증거로서, 갑골문에도 「帝使鳳」이라는 즉 上帝의 使者인 鳳凰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여러 짐승들이 上帝의 使者였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구절이다⁵⁾. 麒麟 또한 이러한 신령스러운 동물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麒麟의 성격을 여기에서는 크게 五行의 精靈, 死後世界의 인도자·수호자, 덕과 인의 상징, 장수와 죽음의 예고, 기린의 짝 봉황, 白麟의 중요성 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 五行의 精靈

麒麟은 우주 운행 질서의 가장 중요한 정령으로서 신앙되었다. 中國 후한시대의 蔡邕(133-192)은 麒麟이 五行의 화신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또한 도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五帝五靈의 중앙이 되는 정령이 또한 麒麟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⁶⁾ 또 『瑞應圖』에서는 麒麟이 「푸른 기린은 聳孤라 하고, 붉은 것은 炎駒, 흰 것은 索冥, 검은 것은 角端, 황색의 기린은 糜麟」이라 하여 五彩의 기린을 이상화하고 있다. 기린이 오행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중국 수나라의 古鏡記에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즉 『太平廣記』⁷⁾ 230器玩에서 '隋나라 王度の 古鏡記'에서 어느 누구가 왕도에게 고경을 주었는데……거울의 뒷면 중앙에

3) 장소현, 『동물의 미술』(열화당미술문고, 1979), p. 49.

4) 張光直, 『考古學專題六講』(文物出版社, 1986), pp. 6~10.

5) 위의 책, pp. 112~113.

6) 葛兆光/심규호 옮김 『도교와 중국문화』(동문선, 1993), p. 93. 즉 '동방 청제의 神名은 靈威仰, 정령은 蒼龍이다. 남방 적제는 神명이 赤標弩, 정령은 주조이다. 중앙 황제는 神명이 含樞紐, 정령은 기린이다. 서방 백제는 神명이 白招矩, 정령은 백호이다. 북방 흑제는 神명이 葉光綺, 정령은 현무이다.'

7) 『太平廣記』는 宋나라 李昉 등이 칙명을 받들어 漢나라에서 五代에 이르기까지의 傳說·奇聞을 수록한 것.

기린이 꿰어 얹은 자세의 모양을 만들고 그 주위에는 사방 거북, 용, 봉황, 호랑이를 방향에 맞추어 배치하였고, 그외에 八卦를 배치하고 팔괘 바깥에는 십이지 등을 배치하였다 한다⁸⁾.

다른 여러 기록에서도 기린이 우주질서 운행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⁹⁾ 歲星이 변하여 기린이 되었다고도 하고 기린이 木精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木星은 그 당시 曆法의 기준이었다. 그래서인지 기린이 다투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 하며¹⁰⁾, 때로는 日蝕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즉 麒麟이 다투면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道義가 폐하게 되어 세상이 곤란해진다고 한다. 이상에서 기린이 古墳美術에 조형되는 주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주질서의 운행을 담당하여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善政을 행하게 하고 나라의 災殃을 없애자는 목적인 것이다. 오행사상의 구체적 표현의 도표를 살펴보아도 그 당시 기린이 오행의 정령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¹¹⁾(圖表 1).

2. 死後世界의 引導者·守護者

不死의 神인 西王母일행이 타고 있었던 동물도 기린이었고¹²⁾, 麻姑가 蔡經의 집에 올 때도 하늘에서 麒麟을 타고 내려왔음을 알 수 있었다¹³⁾. 神인들이 살고 있는 神宮에서는 麒麟과 靈芝가 많이 있다고 『博物志』는 이야기하고 있다¹⁴⁾. 심지어 不朽之精으로도 또는 元朽之精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특히 고분미술에서 기린이 나타나는 위치가 천상세계를 묘사한 천정과 현실세계를 묘사한 벽면과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린의 사후세계로의 인도자와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인도자적 속성과 더불어 기린이 가지는 중요한 속성이 사후세계를 지켜준다는 수호자로서의 의미이다. 帝王의 무덤 앞을 지키는 石獸로 石麒麟, 石辟邪, 石象, 石馬 등을 세우고,

8) 『太平廣記』卷二百三十「器玩二」, “隋汾陰侯生天下奇士也。王度常以師禮事之。臨終贈度以古鏡曰。持此則百邪遠人。度受而寶之。鏡橫徑八寸。鼻作麒麟蹲伏之象。遠鼻列四方龜龍鳳虎依方。陳布四方外又設八卦。卦外置十二辰位而具畜焉。辰畜之外又置二十四字周遠輪廓。文體似隸點劃。無缺而非字書所有也”

9) 宋 吳淑 『麟賦』에서 “伊一角之仁獸。稟五行之粹精。毛蟲之長”

10) 『春秋緯』「保乾圖」, 歲星散爲麒麟, 「演孔圖」, 麟闕則日無光, 「運斗樞」, 玦星得則麒麟生, 麒麟木精也。(『春秋緯』는 지금은 없어졌으나 『古微書』에 그 부분이 전하고 있다.)
『淮南子』「天文訓」, 麒麟闕而日月食, 鯨魚死而彗星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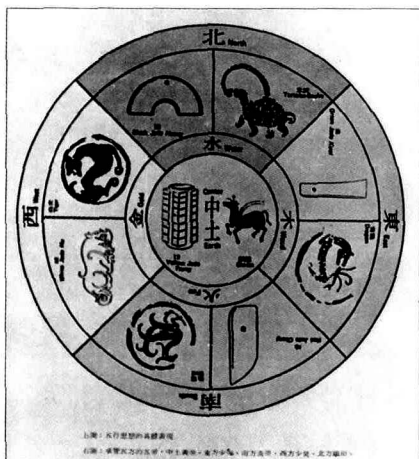
11) 李亦園 主編/殷芝 撰, 『中國神話與傳說』(台北, 1984), p. 77에서 도표 轉載.

12) 漢 班固 撰 『漢武帝內傳』, “……王母至也。縣投殿前有似鳥巢。或駕龍虎。或乘白麟。或乘白鶴。或乘軒車。或乘天馬……”

13) 『太平廣記』第六十, 女仙五, 麻姑條, “一皆乘麟從天而下懸集於庭……”

14) 『博物志』卷一 “神宮在高石沼中。有神人多麒麟靈芝神草。有英泉飲之。眠三百歲乃覺不死。去瑯琊萬五千里”

人臣의 墓 앞에는 石羊, 石虎 등을 세웠다는 記錄이 있다¹⁵⁾.



〈圖表 1〉五行思想 구체적 표현도

당시는 제사지내는 대상에도 신분적 차등을 두었으며¹⁶⁾, 무덤의 크기 그리고 樹種조차도 松, 栢, 楊, 榆 등으로 구분, 尊卑의 差에 따라 심게 하였다¹⁷⁾. 동물 모티프 使用에서도 尊卑의 差別制度가 엄연히 존재했던 그 당시 오직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기린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秦始皇이 집정한 후 首都 咸陽을 건설하면서 宮殿의 外觀의 藝術美가 增加하게 되고 建築裝飾方面으로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된다. 『三輔黃圖』 「五作宮」條에 '驪山秦始皇陵園 앞에 頭高一丈三尺되는 石麒麟이 있다'¹⁸⁾고 하였으나 지금 그 石獸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기린에 관한 기록은 단지 『新增東國輿地勝覽』 「慶州府」조에 보이고 있으나¹⁹⁾ 현존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후세계를 지켜주는 기린은 청대 황제릉에까지 그 전통이 계속되었고, 우리나라 조선후기의 왕릉에도 石麒麟의 실례가 있다.²⁰⁾ 즉 기린은 우리나라에서도 死後世界의 인도자 및 수호자로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德과 仁의 상징

麒麟은 일반적으로 德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仁獸임이 강조되었다. 『說文』에서도 '麒麟仁獸也'라 하였으며 『說苑』에도 '舍仁懷義'라 하였다. 이렇듯 麒麟이 仁獸임을 적은

15) 封演, 『封氏聞見記』 卷六, 「羊虎條」, “秦漢以來帝王陵前有石麒麟石辟邪石象 石馬之屬, 人臣墓前有石羊石虎石人石柱之屬 皆所以表飾墳冢如生前之象”

16) 『論衡』 「祭儀篇」, “王者祭天地, 諸侯祭山川, 卿大夫祭五祀, 士庶人祭其先, 宗廟社稷之祀 自天子達於庶人”

17) 『太平御覽』, 卷第五五七, 「禮儀部 三十六, 三十七」, “禮系曰 天子墳高三雉, 諸侯半之, 卿大夫八尺, 士四尺, 天子樹松, 諸侯樹栢, 卿大夫樹楊, 士樹榆, 尊卑差也.”

18) 湯池, 「秦及西漢時期的彫塑藝術」, 『中國美術全集-彫塑篇 2. 秦漢彫塑』, 人民美術出版社(北京, 1988), p. 2.

1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一, 「慶州後題詠篇」, “石臥麒麟空慘慘”

20) 『朝鮮王陵』(宇進文化社, 1986), p. 62.

기록이 적지 않은데,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하면 나타나는 瑞獸로서도 麒麟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 千年을 살고 살생을 미워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속성이²¹⁾ 仁君과 결합하여 정치적 성향의 신수로 자주 표현된 것이다²²⁾. 왕이 어진 정치를 할 때 나타나는 동물이 麒麟인데²³⁾ 殺生을 미워하는 仁獸로서의 속성을 가진 麒麟과 어진 임금의 이미지가 합해졌을 것이다.

4. 長壽와 죽음의 예고

기린은 또한 長壽의 대명사로 나타나는데 『抱朴子』 「內篇對俗」에서 기린은 삼천년을 산다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 「外篇自敘」에서는 기린의 뿔이 특히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仙家에서는 봉황의 부리와 기린의 뿔을 합쳐 삶으면 큰 영험을 얻는다고 한다.²⁴⁾

麒麟은 동시에 죽음을 예고하는 조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公羊傳』, 哀公十四年에 서쪽으로 狩獵을 나갔다가 麟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孔子가 자신의 죽음을 豫告한 것으로 받아들여 슬퍼하였다고 한다²⁵⁾. 『三國遺事』 「義湘傳教」편에서도 麒麟과 孔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僧 智儼이 세상을 떠남을 이야기 하고 있다²⁶⁾.

5. 麒麟의 짝 鳳凰

기린의 속성 중 특이한 점은 봉황과 짝을 이루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麒麟은 흔히 鳳凰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도상적으로도 짝으로 나타나고 있다. 鳳凰과 麒麟이 함께 출현하는 것은 古代의 여러 文獻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⁷⁾. 『易林』에는 「鳳凰

21)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設武備而不爲害，所以爲仁也，不履生蟲，不折生草也”

22) 出石誠彦, 앞의 책, pp. 167~168.

『論衡』, 「講瑞論」, “或曰鳳凰麒麟太平之瑞也，太平之際見來至也”

『白虎通』, 「封禪篇」, “天下太平符瑞所以來至者……則鳳凰翔，鸞鳥舞，麒麟臻”

『淮南子』, 「覽冥訓」, “昔子黃帝治天下……鳳凰翔於庭，麒麟游於郊”

23) 『毛詩義疏』, “白麟現 王者至仁”

24) 『海內十洲記』 “鳳麟洲在西海之中央地……洲上多鳳麟數萬……亦多仙家煮鳳喙及麟角 合煎作膏名之爲續絃膠或連金泥”

25) 中鉢雅量, 『中國の祭祀と文學』, 創文社(東京, 1989), p. 115.

26) 『三國遺事』 卷第四 義湘傳教條 “圖成總章元年戊辰 是年儼亦歸寂 如孔氏之絕筆於獲麟矣”

27) 장소현, 앞의 책, pp. 92~93에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焦氏易林』 卷一, “鳳凰所遊安樂無優”

在左, 麒麟處右, 仁聖相遇」라 하였고, 『淮南子』 「覽冥訓」에서는 「해와 달이 깨끗하고 맑으며, ……봉황이 물에 와서 놀고 기린이 교외에 와서 놀며……」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⁸⁾. 永建 元年 (A.D 126년)의 麟鳳碑에는 麒麟은 하늘의 짐승이요, 鳳凰은 하늘의 새라 하였다²⁹⁾. (圖 1) 麒와 麟을 암수로 나누고 鳳과 凰을 암수로 나누는 것도 기린과 봉황의 공통점이다³⁰⁾.

6. 白麟의 중요성

麒麟이 단독으로 표현될 때에는 거의가 ‘麟’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白麟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³¹⁾. 『漢武帝內傳』에는 西王母일행이 武帝를 방문하였을 때 鶴과 白麟을 타고 있었다 한다. 또 『晉書』의 「咸寧五年 平原에서 백기린이 보였다.」는 기사와 秦初 元年의 「白麟을 보고 모든 짐승들이 따라갔다.」는 기록으로도 백린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³²⁾.

이러한 白麟의 중요성은 中國年號를 살펴보아도 간략하게 살필 수 있다. 年號는 西曆紀元前 841년의 共和 元年부터이겠지만, 帝王의 治世를 말하는 年號로 따진다면 漢 武帝의 建元 元年(기원전 140)으로부터 잡는다³³⁾. 그러나 본래 年號의 시작은 白麟을 잡은 것에서 유래한다. 武帝가 즉위하고 19년째 되는 해(기원전 122년)에 雍縣에 이르러 五帝에 제사지내고 사냥을 했는데, 짐승 한마리를 잡았다. 그 털은 순백색이며 머리에 는 뿔이 하나 밖에 없었다³⁴⁾. 이렇게 해서 한편의 麒麟之歌가 만들어지고 이 盛事가 기

『易林』, “鳳凰在左麒麟處右仁聖相遇”

『淮南子』, 覽冥訓, “鳳凰翔於庭, 麒麟游於郊”

『論衡』, 講瑞論, “或曰鳳凰麒麟太平之瑞也, 太平之際見來至也”

『孝經授神契』, “德之鳥獸則鳳凰來鸞鳥舞麒麟臻”

『晉書』 卷三, “秦始元年十二月是月鳳凰六青龍六白龍二麒麟各一見于郡國”, “二年鳳凰六青龍十黃龍九麒麟各一見于郡國”

28) 이외에 『淮南子』의 「繆稱訓」편과 「兵略訓」에서도 기린과 봉황이 짝으로 나타나고 있다.

『淮南子』, 앞의 책, p. 230, p. 374.

29) 『孟子』, 「公孫丑上」에도 “麒麟之於走獸, 鳳凰之於飛鳥”라 하였다.

30) 『漢書』, 『後漢書』, 『史記』, 『三國志』에 나타나는 麒麟과 鳳凰의 기사를 살펴보면 麒麟이 출현하는 경우가 『漢書』의 경우만 든다면 ‘麒麟’으로 표현된 경우가 24회, 그 중 ‘麟’만으로 표현된 경우는 7회이다. 鳳凰의 경우도 유사하다.

31) 『宋書』 「符瑞志」, “吳孫權 赤烏元年八月 白麟見建業, 大康元年 四月 白麟見頓丘”

32) 渡邊素舟, 『東洋文様史』(富山房, 東京, 1971), p. 169.

33) 황원구, 앞의 책, p. 232. 建元 以前에도 中元, 後元의 紀年 表示가 있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建元 으로부터 年號의 始作을 삼고 있다.

34) 고희장/이부오 역, 『中國 古代의 方士와 儒生』(온누리, 1991), pp. 56~57.

록되었으며, 후에 신하들은 이해를 元狩 元年으로 정하자고 했다.³⁵⁾

물집승의 우두머리인 神獸 麒麟의 중요도는 『史記』, 『漢書』, 『後漢書』, 그리고 『三國志』에 나타나는 麒麟의 횡수만 보아도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³⁶⁾. 그리고 이러한 기린은 그후에도 높은 정신성과 숭고미 만은 계속 숭앙되어 오고 있다. 기린과 봉황이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나라에 재앙이 없게 하고 상서로운 별이 비추며 仁政이 크게 행해지며 칭송하는 소리가 사방에 퍼진다고 하는 등³⁷⁾ 그 길상적 의미는 계속 신앙되었다.

II. 高句麗古墳 麒麟圖의 전개

三國時代 麒麟 表現의 대부분은 古墳관계의 美術品에서 발견된다. 특히 高句麗 古墳壁畫에 四神 외에도 수많은 瑞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四神과 함께 前期부터 고분벽화 등장의 後期까지 꾸준히 조형된 동물이 麒麟이다. 기린에 관해서는 高句麗의 여러 文獻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 대동강변에 기린굴이 있는데, 이 기린굴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이 기린을 사육하던 굴이라고 한다³⁸⁾. 『朝鮮志』에서도 이 기린굴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李穡의 평양 「浮碧樓」詩에서도 “馬麟去不返 天孫何處有”라고 하였다.³⁹⁾ 麒麟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古墳壁畫을 살펴보면 安岳 1號墳, 三室塚, 舞踊塚, 長

35) 황원구, 앞의 책, p. 233보다 자세한 분석은 pp. 236~237에 상세히 나와 있다.

36) ()는 出現의 의미가 祥瑞의이고 神獸의 성격이 강한 경우이다.

	『漢書』	『後漢書』	『史記』	『三國志』
麒麟	24(11)	16(7)	16(5)	2(1)
天馬	16	2(1)	8	·
白虎	9(2)	6(1)	2	2(2)
獅子	2	1	·	·

37) 『古今圖書集成』 “景星照堂 麟遊鳳翔 仁施大行 頌聲作興”, “麒麟鳳凰 善政得祥 陰陽和調 國無災殃” “麒麟鳳凰 子孫盛昌”

『焦氏易林』 卷一 “麟鳳所遊 安樂無憂”

38) 李玉, 「古代 中國人の 動物觀과 그 描寫」, 『東方學志』, 1985, p. 47에 기린이 있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인 文獻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권 22, p. 474. 평양조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문헌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39) 『朝鮮志』 卷上 「平安道·麒麟窟」 “在平壤府 浮碧樓下 東明王養麒麟馬於此 後人立石誌之 世傳王乘麒麟馬入此窟 從地中出朝天石升天 其馬蹟至今在石上”(『朝鮮志』에 이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李穡의 詩는 다음 논문에서 정보를 얻었다. 池浚模, 『三國遺事』에 收錄된 動物의 象徵 研究, 『慶山文學』 7輯, 1991, p. 167.)

川 1號墳, 四神塚⁴⁰⁾, 蓮花塚⁴¹⁾, 江西中墓, 江西大墓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圖表 2 참고)

〈圖表 2〉⁴²⁾

三室塚 (4세기말~5세기초)	安岳 1호분 (4세기말~5세기초)	舞踊塚 (5세기초)	長川 1호분 (5세기 중엽)	五盤墳 五號墓 (6세기 전반)	江西大墓 (6세기말)
〈제2실 서벽〉 朱雀 1쌍(1층), 蓮花 3(2층), 流雲文(4층), 麒麟, 瑞鳥(5층)	〈천정서벽〉 麒麟, 화염문, 寶輪 文, 星宿, 瑞鳥	〈천정북동벽〉 당초화염문, 麒麟, 빨피리 부는 天女, 瑞 鳥蓮花, 雲氣 文, 星宿, 飛 天	〈전실천정동벽〉 朱雀, 麒麟 二, 蓮花, 佛像, 墓 主夫婦禮拜, 男 女侍從, 侍女四, 雙人童子蓮花化 生, 飛天, 天女, 奏樂天人三	〈전실천정북서벽〉 龍을 탄 神仙, 麒 麟 탄 神仙, 月象, 北斗七星	〈천정서북쪽〉 麒麟2, 鳳凰 2, 蓮花, 飛 天, 瑞鳥, 流 雲文

그러나 現實的인 對象이 아니라 다분히 幻想的이고 神秘的이며, 觀念의 産物이었던 麒麟은 時代에 따라 象徵意味를 달리하고 있으며⁴³⁾, 그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념과약이 용이하지 않다. 우선 麒麟이라고 하면 언뜻 아프리카의 麒麟(giraffe)을 연상시키지만 동양 고래로부터의 기린을 지칭함은 아니다. 지라프가 麒麟으로 된 것은 영어를 한역하면서 생겨난 것이고, 일본인 또한 기린으로 번역한다고 『辭源』에 언급하였다⁴⁴⁾. 一次的으로 麒麟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想像上の 靈獸. 聖君이 나서 王道가 행하여지면 나타나며 生草를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아니하며 모양은 사슴같고 이마는 이리, 꼬리는 소, 굽은 말과 같고 머리 위에 뿔 한 개가 있다 함. 수컷을 麒, 암컷을 麟이라 함⁴⁵⁾」

이상의 정의에서 麒麟이 사슴, 소, 말, 이리 등 여러 동물의 결합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

40) 현실 서쪽벽 천정받침돌 중 月象 옆면에 표현되어 있으나 도판이 뚜렷하지 않아 제외시킨다.

41) 蓮花塚에도 나타나나 도판을 구하지 못해 여기에서 제외시켰다.(李泰浩, 「高句麗壁畫古墳④-人物風俗圖墓 ③蓮花塚」, 『北韓』, 1979, 9. pp. 234~43)

42) 편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高句麗古墳壁畫』(東京, 朝鮮畫報社, 1986) : 李成美, 「北韓의 美術史研究現況 : 古墳壁畫」, 주영헌 편, 『北韓의 韓國學 研究成果 分析-歷史·藝術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p. 293~358. 전시회도록, 『고구려고분벽화』(한국방송공사, 1994), 전시회도록, 『集安고구려고분벽화』(조선일보사, 1993).

43) 李澤厚/尹壽榮 역, 『美的歷程』(동문선, 1991), p. 92.

44) 駒井和愛, 앞의 논문, p. 235. 『辭源』(臺灣商務印書館, 1979), p. 2422.

45) 李相殷 監修, 「麒麟條」, 『漢韓大字典』(民衆書林, 1987), p. 1414.

고 등의 털은 五彩를 띠고, 배의 털은 황색을 띠고, 날개가 있어 능히 날 수 있으며⁴⁶⁾, 또한
 玉같은 맑은 氣를 토해낸다고 한다⁴⁷⁾.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麒麟의
 형태파악을 하여보면 크게 사슴형과 그리고 사슴과 말의 혼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러한 기린의 형태변화 즉 사슴에서 말모양으로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시대적인 조형사상의 多面성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 감성과 종교사상의 일단면
 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 사슴형 麒麟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기린은 사슴형 기린이다. 이러한 麒麟의 形態와 起
 源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지라프라는 설과 一角獸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유니콘으로 설명한
 바도 있었으나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은 日本人 學者 出石誠彦의 說明일 것이다. 즉 麒麟은
 그 起源이 사슴송배에서 시작하여⁴⁸⁾, 사슴의 모습에 神獸로서의 하나의 뿔과 날개 등이 부
 가되었다는 설명이다⁴⁹⁾. 古文字學에 대한 그의 탁월한 識見과 실제 조형상의 比較研究는 그
 의 설명을 보다 설득력있게 한다⁵⁰⁾. 그리고 실제 여러 기록에서도 사슴과 麒麟의 관련성이
 보이고 있다.⁵¹⁾ 그러나 記錄에 나타난 기린이 어떤 사슴이었는지는 사항노루, 고라니, 순록
 등 일정하지 않다⁵²⁾.

麒麟에 대한 조형은 중국의 경우 周代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⁵³⁾, 실제 작품이 남아있는
 경우는 전국시대부터이며, 제작년대가 밝혀진 명문이 있는 경우는 漢代부터이다⁵⁴⁾. 초기 기

46) 『爾雅翼』“麒麟……有翼能飛”

47) 『拾遺記』“……有麟吐玉書”(여기에서의 玉書는 玉氣를 의미한다.)

48) 사슴은 상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잡았던 동물이다. 또한 번식이 빠르고 치명적인 공격 능력이 없었으므
 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잡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야생동물이었다.(허진웅/홍희 譯, 『중국고대사회』(동문
 선, 1991), pp. 64~65) 중국 사람들은 사슴을 수명이 긴 동물로 여겨 長壽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49) 出石誠彦, 『支那神話傳説の研究』, 中央公論社(東京, 1943), p. 169.

50) 出石誠彦, 앞의 책, p. 181. 그리고 장소현, 앞의 책, p. 96에 이 문장이 번역되어 있어 引用하였다.

51) 『史記』, 卷二十八「封禪書」, “……其明年, 郊雍獲一角獸, 若麋然.”

『論衡』, 「講瑞篇」, “春秋之麟如麋, 宣帝之麟如鹿, 鹿與麋小大倍體不同也.”

『舊唐書』, 「五行志」, “元和七年十一月, 龍州武安川會田中, 嘉禾生, 有麟食之, 復麟之來一鹿, 引之群鹿隨之.”

52) 앞 주와 동일. 『說文』, “麒麟仁獸也, 麋身牛尾一角.” 『爾雅』, “麟麋身牛尾一角.”

53) 실제 작품은 남아 있지 않으나 기록상으로는 周나라 青銅器 가운데 周麟盃가 있다. 『重修宣和博古圖』 卷
 十九에 그림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54) 渡辺素舟, 『中國古代文様史「下」』(東京, 雄山閣, 1976), p. 205.

린의 조형은 일반적으로 사슴형 麒麟이 대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漢代에 제작된 麒麟碑를 들 수 있다.(圖 2) 사슴의 몸, 소의 꼬리, 안테나 같은 육질의 뿔과 호선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슴형 기린은 우리나라에서는 삼실총, 무용총, 안악 1호분 등 주로 고구려 전반기 고분벽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1) 三室塚

고구려 초기 기린의 조형은 일반적으로 사슴형 麒麟이 대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중국 集安 여산 남쪽 기슭에 있는 4세기말 5세기초에 제작된 삼실총에 보이는 麒麟圖이다.(圖 3) 거의 같은 크기의 묘실 세 개가 이어진 특이한 墓室 구조로 알려진 三室塚은 第二室 北面天井部 4층 받침석에는 鳳凰과 함께 麒麟이 그려져 있다. 이 麒麟은 앞 발과 뒷 발을 각기 한 발씩 땅을 딛고 서 있으며 나머지 오른쪽 두 발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로 들고 있다. 頭部는 안테나 형태의 뿔이 솟아있으며 목 뒤로 갈기가 날카롭게 휘날리고 있다. 목에서부터 배까지는 붉은 반점이 군데군데 시문되어 있다. 날개는 단일선의 氣翼型 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꼬리는 漢代 辟邪의 꼬리처럼 끝에서 당초문처럼 말아 올려지고 있다.

이러한 삼실총의 기린과 자세, 반점, 갈기의 표현, 배치장소 등 여러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중국의 기린은 3세기 沂南 化상석묘의 천정 받침석에 그려진 기린도이다.(圖 4) 古墳 천정구조의 특색처럼 되어 있는 抹角藻井도 沂南의 石墓에 나타나 있고 八角形 石柱도 이 沂南墓에 있고, 柱頭에 料拱을 얹어 天井石을 받들게 하는 것까지 똑같다.⁵⁵⁾ 天井 받침석에 여러 瑞獸들이 그려져 있는데 기린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당시 중국의 고분미술에서 기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圖表 3) 이러한 기린이 천정 받침석에 나타나는 것은 天界와 人界를 연결시켜주는 즉 死者를 冥界로 이끄는 引導者적 역할과 아울러 天界의 입구에서 천계를 지키는 守門將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듯하다.⁵⁶⁾

55) 金元龍,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研究-韓國 古代 美術에 대한 中國의 影響」, 『震檀學報』 21號, 1960. 이태호, 위의 논문. : 曾昭燁 外, 『沂南畫像石墓發掘報告』(山東省, 文化部管理局出版, 1956), p. 44~45.

56) 曾昭燁 外, 앞의 책.

〈圖表 3〉⁵⁷⁾

	春秋繁露	白虎通	武氏祠畫像石	望都漢墓壁畫	和林格爾漢墓壁畫
動物	黃龍 麒麟 鳳凰 黃鸝 靈龜	黃龍 麒麟 鳳凰 白虎 白鹿 鸞鳥 白雉 白鳥 九尾狐	黃龍 麒麟 白虎 赤 龍 白馬 澤馬 白魚 六足獸 比肩獸 比 翼鳥 比目魚	鳳凰 鸞鳥 白兔 雞 鶩 鴛鴦	麒麟 鳳凰 白鳥 白馬 靈龜 赤龍 一角獸 比肩獸 青龍 白 象 白狼 白狐 白鶴 白燕 朱雀 赤雀 姜元 三角獸 三足鳥
植物	朱草 嘉禾	朱草 嘉禾 萸英 柀 木連理 芝實 太平 萑苳	萸英 巨柀 木連理	芝草	萸英 木連理 平露

2) 安岳 1號墳

麒麟과 鳳凰이 그려지는 위치는 대부분 천정 받침석인데 안악 1호분의 경우도 그러하다. (圖 5) 황해도 안악군 대추리에 있는 4세기말 또는 5세기 전반에 제작된 單室墓인 이 안악 1호분은 네 벽과 천정 모두에 벽화를 그렸다. 천정 받침석 서면에는 오른편 절반 이상이 벗겨 떨어지고 왼편에 날개 달린 麒麟 한 마리만이 남아 있는데 아마 한 쌍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麒麟의 모습은 앞으로 달리는 자세이며, 머리에는 麒麟의 가장 큰 특징인 한 개의 뿔이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다. 거친 선과 신체에 어울리지 않는 큰 날개의 표현 등은 아직까지 상징적인 동물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사슴형 기린임을 알 수 있다.

안악 1호분에 나타난 기린과 主題面이나 樣式的인 면에서 類似한 中國의 例가 安徽省 馬鞍山市 朱然墓에서 출토된 三國시대 蜀에서 제작된 彩會鳥獸紋漆상자가 있다. (圖 6) 이 상자의 바닥은 나무로 만들고 옆 몸체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대나무 못을 이용하여 연결시켰고 麻布로 견고하게 고정시켰다. 상자의 측면에는 당초문을 들렀으며, 7면으로 나누어진 윗면은 朱漆을 한 뒤에 여러 짐승들을 그려 놓았다. 위의 3면에는 左로부터 天鹿, 鳳凰, 飛魚가 그려져 있고, 아래면에는 右로부터 麒麟, 飛魚, 雙魚, 白虎를 그렸다. 이러한 동물배치는 안악 1호분 등 삼국시대 고분미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동물 배치와 결합방식에서 고대인 나름대로의 사유방식과 조합방식이 있었을 것이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⁵⁸⁾.

57) 田中有, 「漢墓畫像石 壁畫に見える瑞祥圖について」, 『識緯思想の綜合的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84), pp. 57~70. 그리고 p. 68~69의 도표에서 확인되 듯이 漢代에 얼마나 麒麟이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神獸들에 비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圖表 轉載.

58) 『三國史記』高句麗本紀 第三, 太祖大王條, “七年夏四月 王如孤岸淵觀魚釣 得赤翅白魚”

3) 舞踊塚

집안 여산 남쪽에 있는 5세기초에 제작된 舞踊塚에 이르면 기린도는 앞의 두상보다는 훨씬 말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圖 7) 連花를 사이에 두고 鳳凰은 玄室天井東쪽에, 麒麟은 玄室天井 받침석 넷째에 그려져 있다. 높게 솟은 뿔, 네 다리를 짝 벌린 채 꼬리와 몸의 털을 곤두세우면서 달리는 모습은 생동감이 넘친다. 언뜻 말처럼 볼 수도 있으나, 사슴의 발굽이 분명하고 앞 가슴에는 기린의 특색인 얇은 줄무늬와 안테나형의 뿔이 솟아있다. 날개의 表現은 三室塚의 麒麟과 마찬가지로 앞다리에서 간략하게 뻗어 나오는 氣翼型的 날개를 표현하고 있다. 舞踊塚에는 이 외에도 말과 사슴을 따로 그려놓아 天馬와 사슴 그리고 기린이 각기 다른 존재로 신앙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사슴과 말의 混合形 麒麟

사슴의 모습을 유지하던 麒麟은 5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부터는 눈으로 보아 기린의 몸체가 말인지 사슴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 형태가 애매모호하게 변화한다. 이것은 기린이 점차 말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중국의 경우도 造形된 대부분의 기린이 그 形態가 말(馬)인지 사슴인지가 不明確하다. 여러 記錄에서도 기린의 몸체가 정확히 말(馬)인지 아니면 사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 앞에서 살펴본 『朝鮮志』에서도 ‘馬麟’이라 하였고, 何法盛徵祥記에도 ‘麒麟者 毛蟲之長 仁獸也 牡曰騏 牝曰麟’이라하여 ‘騏’에는 말馬변을, ‘麟’에는 사슴鹿변을 쓰고 있다. 騏와 麟 두 마리를 同時에 표현할 때 두 마리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데에서 도상의 연원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혼합형 기린의 대표적인 예가 장천 1호분과 강서대묘의 기린도가 될 것이다.

1) 長川 1號墳

5세기 중엽에 제작된 集安의 長川 1號墳의 경우(圖 8, 9) 前室天井部 東側の 첫번째 받침석에 연꽃을 축으로 하여 朱雀 두 마리를 마주보게 하고 양 옆에는 고개를 들고 질주하는 麒麟을 그리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四神의 위치에 기린이 함께 묘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쪽에 배치되는 것과는 달리 동쪽에 그려진 朱雀은 雌雄을 나타낸 듯 표현상 약간 차이를 보이고 麒麟 또한 왼쪽은 頭部가 사슴같으나 우측 麒麟은 말과 같이 표현되었다. 두 기린의

頭部 中央에 두 마리가 다 화염문 같은 뿔이 표현되었으며 뿔에는 瑞氣가 있는 듯 목의 갈기가 꼬리처럼 휘날리고 있다. 자세는 네 발을 짝 벌린 채 곤두 세워진 갈기털과 함께 굳센 飛翔을 하는 모습이다. 頭部, 목과 꼬리의 이와 같은 갈기표현은 바람에 자연스럽게 날리는 모습이 아니라 도식화 현상인지는 모르나 한번 꺾이면서 뻗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두부의 뿔에서나 목의 갈기, 꼬리털에서 다 함께 나타나고 있다. 좌측 麒麟의 身部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우측 麒麟의 身部에는 斑點이 군데군데 표현되어 있어 이 기린이 사슴형에서 말로 변화하는 중간단계임을 알 수 있다. 좌측에는 없는 가슴의 털이 우측에는 묘사되어 있다. 다리에서 털인지 갈기인지는 모르나 조금씩 뻗쳐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고분벽화의 기린의 모습이 사슴에서 점차 말을 닮아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五炁墳 五號墓

6세기 전반에 제작된 중국 길림성 집안현 대왕촌에 있는 이 고분은 1945년 이전에는 통구 17호분이라 불렀다. 이 고분 후면 서북쪽 천정부 고임 안쪽에 平天冠을 쓰고 용을 탄 신 옆에 기린을 탄 신선이 묘사되어 있다.(圖 10) 通天冠을 쓴 이 神仙은 오른손에는 깃발을 왼손에는 연봉을 잡고 있다. 우선 기린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사슴과 말의 혼합형을 보여주며, 세부적으로는 두부에 안테나형의 뿔이 달려있고 몸에는 적·백·황·청·갈색으로 줄무늬를 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네 다리는 달리는 자세로 앞뒤로 뻗은 형태이다.

不死神인 西王母, 그리고 女仙 麻姑도 하늘에서 麒麟을 타고 내려왔음을 앞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神人들이 살고 있는 神宮에서도 麒麟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천상세계의 仙人이 기린을 타고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특히 고분벽화에서 기린이 나타나는 위치가 천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중간 고임들에 표현된 것으로 보아 기린의 사후세계로의 인도자와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3) 江西大墓

6세기말에 제작된 평안남도 남포시 삼묘리에 위치한 강서대묘의 대표적인 내용인 四神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麒麟圖 표현 중 가장 역동적이고 회화성이 뛰어난 상은 이 墓에서 보인다.(圖 11, 12) 이곳의 麒麟圖는 玄室 말각조정 天井 第3段 三角킴돌 측면에 4판 3각 킴돌 측면의 怪鳥圖와 제4단 모서리 3각킴돌 측면의 鳳凰과 함께 그려져 있다. 연꽃을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한 1쌍의 麒麟은 가슴에 모두 날개가 달려있고 머리 중앙에는 한 개의 뿔이 있다. 네 다리를 앞뒤로 쭉 뻗치고 옥같은 기운을 내뿜고 질주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까지의 麒

麟圖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머리에는 끝이 동그란 형태의 뿔이 있고 목덜미의 갈기와 꼬리 털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여기에서도 의식적으로 두 마리가 똑같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雌雄을 의식한 듯 頭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몸의 중간중간에 斑點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사신도의 白虎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서대묘의 기린과 비교될 수 있는 혼합형 기린의 대표적인 중국 도상은 鄧縣에 있는 500년 전후에 제작된 畫像磚墓의 「騏麟」銘이 있는 화상전이다.(圖 13) 명문에서도 騏에는 말馬 변을 麟에는 사슴鹿 변을 쓰고 있어 말과 사슴의 혼합적인 일면을 드러내고 있다. 단지 騏麟이라는 명문만 없다면 누구나 천마 내지는 말로 오인할 것이다. 점차 사슴의 몸에서 말의 몸으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말의 몸에, 앞가슴에는 줄무늬가 있고 몇 개의 반월형 반점이 있으며 氣翼形⁵⁹⁾의 날개가 표현되었다. 머리에는 용의 뿔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기린이 말의 몸을 빌리는 것은 말에서 기린이 태어난다는 탄생 설화 이외에도 실재하지 않는 신령스러운 동물에 부여되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일 것이다.

이상 高句麗 古墳壁畫에 보이는 麒麟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 당시 麒麟의 의미가 四神과 마찬가지로 사후세계에서 인도자·수호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 또한 麒麟의 표현은 時代에 따라 그 樣相이 5세기 중엽을 전후로 사슴형에서 말과 사슴의 혼합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상적 변화는 중국의 기린표현 변화 즉 漢代의 사슴형기린에서 남북조시대에 들어서면 말과 사슴의 혼합형 기린으로 바뀌는 것과는 그레를 같이함을 알 수 있었다. 사슴형에서 말로 변화되는 이면에는 그 만큼 고대사회에서 말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安岳 1號墳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麒麟의 모든 날개표현은 氣翼型이며, 뿔을 반드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달리는 자세, 색채 등에서 동시대의 중국 기린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훨씬 더 고구려적인 역동성과 회화성을 느낄 수 있다.

59) 氣翼型的 날개에 대해서는 李在重의 「中國과 韓國 고대 분묘미술품에 보이는 有翼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도표 2 참고.

60) 柳涵, 「鄧縣畫象磚墓的時代和研究」, 『考古』, 1957. 第5期, pp. 255~263.

Ⅲ. 新羅·百濟 古墳美術의 麒麟像

1. 사슴과 말의 혼합형 麒麟

신라의 왕인 석탈해와 관련된 『三國遺事』 가락국기조에는 '麟郊'가 보이고 있다.⁶¹⁾ 仁政이 행해지거나 성인이 나타날 때면 항상 등장하는 祥瑞의 첫번째 징조로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郊外의 기린과 庭園의 봉황인데⁶²⁾, 여기에서 바로 '麟郊'가 등장하는 것은 그 당시 기린에 대한 신앙을 반증한다 하겠다. 아울러 현재 경주군 용장리의 德泉川과 花谷川이 伊助川에 합수하여 이루는 형산강의 상류를 기린내라고 부르며 또한 근처 화곡리에는 이름이 기린재라는 고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기린신앙을 추정하여 볼 수 있겠다⁶³⁾. 신라의 고분미술에서는 5·6세기에 들어서서야 기린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형태상으로 볼 때에도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기단계에서 보였던 사슴형 기린은 나타나지 않고, 중기 이후의 양식인 말과 사슴의 혼합형 기린이 보이고 있다.

1) 金鈴塚의 麒麟紋 馬具裝飾

5세기로 추정되는 경주 금령총에서 발견된 금동 마구장식 중에서 형태가 기린과 유사한 유물이 있다.(圖 14) 비록 혀가 잘렸지만 머리의 뿔이나 입에서 뻗어져 나오는 玉氣 그리고 네 다리의 모양 등이 기린과 흡사하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슴이라기 보다는 말에 가까운 형태이다. 이 당시 신라의 고분미술에서 기린이 이미 중요한 제재였음을 알리는 예가 되며, 특히 마구에 표현된 점에서 흥미롭다. 물론 이러한 금속제 말갖춤에서의 天鹿이나 麒麟은 樂浪 미술에서는 이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⁶⁴⁾.

2) 飾履塚의 飾履에 나타난 怪獸

또 다른 신라의 기린미술은 식리총에서 출토된 식리에 부조된 기린이 있다.(圖 15) 『三國史記』 色服條에는 眞骨大等은 신을 가죽(皮), 실(絲), 삼(麻)을 사용하고, 六頭品은 가죽 삼

61) 『三國遺事』 卷第二「駕洛國記」, “……僅之與王爭位良難 便拜辭而出到麟郊……”(順庵手澤本 民族文化編輯部, 1984).

62) 『淮南子』, 覽冥訓, “鳳凰翔於庭, 麒麟游於郊”

63) 김재식·김기문 편저, 『慶州風物地理誌』(보우문화재단, 1991), pp. 534~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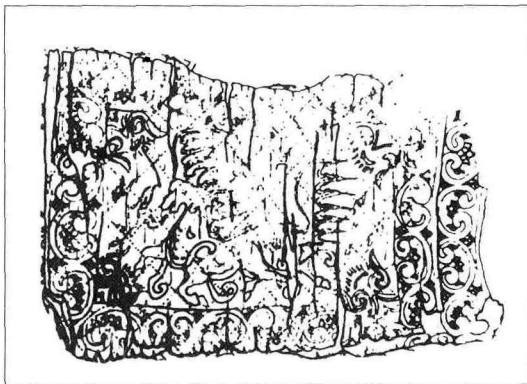
64) 『국립중앙박물관도록』(국립중앙박물관, 1991), p. 232에 은제 말갖춤 마구장식에 天鹿이 표현되어 있다.

(麻)을 사용하는 등의 記錄이 있으나⁶⁵⁾, 금속제 신을 신었다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 飾履는 佩飾具가 아닌 葬儀用品임을 입증하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銅版에 두겹게 도금한 飾履塚 金銅飾履는 3매로, 외부는 좌우 각 1매를 전후에서 連接하고 밑판과 옆판에 龜甲 모양의 連續區劃內에 火焰文, 有翼獸文, 雙禽文, 人面鳥身 등이 투각 시문되어 있는데⁶⁶⁾ 그중에 연주문으로 구성된 구갑문 안의 怪獸는 동물들의 조합 상태로 보아 麒麟같기도 하나 鬚의 유무가 정확치 않아 실제 파악은 어렵다. 龜甲文內에, 獸禽文을 배치하는 전통은 漢代 이래의 전통으로, 당시 北魏의 棺蓋, 石硯, 南朝의 畫象塼, 高句麗의 壁畫古墳, 百濟와 新羅의 副葬品에서도 보여 문화교류의 활발함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麒麟의 意味는 여전히 死後世界의 벽사적인 성격과 死者를 인도하는 역할로 사료된다.

3) 慶州 155號墳 障泥畫의 '天馬'

慶州 皇南洞 味鄒王陵地區 第155號墳이 天馬塚으로 명명케 된 결정적인 자료는 白樺樹皮 障泥天馬圖였었다.(圖 16) 그러나 이 '天馬圖'의 天馬는 천마가 아닌 麒麟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⁶⁷⁾ 우선 논의에 앞서 이 그림에 대한 도상해석의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하여 이 그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이 그림에 대해 언급하면서 누구도 머리 위에 솟아있는 鬚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그러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실측도면을 보면 분명하게 머리부분에 '鬚'이 하나 표현되



〈실측도 1〉 부장품수장케유물 노출상태도

어 있는 것이 보인다.(실측도 1) 한 개의 鬚이 있는 靈獸는 麒麟 외에는 그 예가 흔치 않으며, 앞에서 밝혔듯이 麒麟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牛毛一角'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당시 美術에 조형된 일반적인 天馬의 경우에 있어서도 鬚이 표현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머리부분에 鬚처럼 머리갈기를 표현한 예는 몇몇이 보이고 있으나 날개가 시문되어

65) 金富軾/李丙燾 譯註, 『三國史記』(을유문화사, 1977), pp. 168~170.

66) 尹世英, 『古墳出土 副葬品 研究』(高大民族文化研究所出版部, 1989), pp. 244~247

67) 秦弘燮, 『天馬塚發掘報告書』『회화편』(文化財管理局, 1974), pp. 155~156.

있지 않다⁶⁸⁾.

다음으로 麒麟의 앞뒤로 하여 火焰文인지 唐草文인지는 정확히 구분이 되진 않지만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는 南北朝時代의 墓室畫象埵에도 네모통이에 唐草文이나 火焰文이 표시되어 있으며, 표현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의 뿔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도상을 찾아 본다면 長川 1號墳에 나타난 麒麟圖가 될 것이다.(圖 8, 9) 전체 모습 또한 흡사한 이 기린도는 머리 윗부분의 '뿔', 갈기 그리고 꼬리털을 같은 형태로 뾰뾰하게 표현하여 이 두 그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155호분의 천마도의 꼬리털과 목의 갈기 그리고 뿔에 나타난 표현이 윗부분에서 수평적으로만(>) 뾰은 것이 아니라 뾰쳐나가는 부분에서 長川 1號墳 麒麟의 꼬리털처럼 한번 위로 각이 지면서(>) 다시 뾰쳐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長川 1號墳의 기린보다, 155호분의 갈기 표현이 보다 도안화되고 도식화되었다⁶⁹⁾. 時期도 5세기 중엽의 長川 1號墳과 6세기말 江西大墓의 중간인 天馬塚의 6世紀初의 年代와 비교하여도 그 변화과정에서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이 그림에서 입에서 혀를 내민 듯 神氣를 내뿜고 있는 설명은 도상적으로 이 동물이 天馬가 될 수 없는 요소로 일반적으로 神氣를 내뿜고 있는 天馬의 類例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神氣의 표출은 高句麗 古墳壁畫에서는 四神圖의 四神이 神氣를 뿜고 있는 것을 알았다. 麒麟도 대부분 神氣를 내뿜고 있다. 또 麒麟의 속성 중의 하나가 玉같은 맑은 기운을 뿜는 것임도 이미 앞에서 문헌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55호분의 그림이 말이 아니라 麒麟일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당시 고구려나 중국의 일반적인 麒麟을 살펴보아도 모두 神氣를 내뿜고 있다.

셋째, 몸체의 여러 곳에 있는 반달무늬의 斑點과 四肢에 연결된 고사리 모양의 것에 대해서 이다⁷⁰⁾. 이러한 반점은 고구려 四神의 西方神인 白虎 그림에도 나타나며 이 반점이 바로 靑龍과 도상적으로 구별되는 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린의 기원이 사슴에서 출발하였


68) 두부의 갈기를 뿔과 같이 유사하게 표현한 몇몇 예에 대해서는 이재중, 「중국과 한국 고대분묘미술품에 보이는 유익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도표 참고.

69) 天馬圖와 高句麗 古墳壁畫와의 樣式的 系譜를 세우는 데는 이미 다음의 論文이 있어, 여기에 착안한 바가 많았음을 밝힌다.(安輝濬, 「韓國 古代繪畫의 特性과 意義 (下) - 三國時代의 人物畫를 中心으로 -」, 『美術資料』 42號, 1988. pp. 50~53.

70) 권영필, 「신라인의 미의식-북방미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라예술의 신연구-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6집, 1985. pp. 244~251에서 필자는 스키타이 계통의 감옥장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 때문에 南北朝時代가 되면 麒麟표현에 斑點을 표현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며 고구려 江西大墓의 麒麟圖에서도(圖 11, 12) 이러한 斑點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기린의 뒷다리에 각기 뻗어나오는 고사리 모양은 기린의 갈기가 뻗어나온 것으로 보인다. 四肢의 뒷부분에서 뻗쳐 나오는 갈기는 당시 麒麟이나 龍 등의 神獸에 나타나는 공통된 표현이며, 마치 雲氣文처럼 길게 표현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끝부분이 고사리처럼 말려 올라간 것에서 꼬리와 뿔의 경우처럼 도식화의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천마의 표현에서 이제까지 간과되어 온 또 하나의 사실은 기린의 앞다리 부분과 뒷 몸체에 표현된 갈고리 모양의() 날개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瑞獸표현에 보이는 동양적인 氣翼型의 날개인데, 武寧王陵 석수에도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의 기린표현에서도 나타났던 공통적인 날개이다. 이 당시 고구려, 신라, 백제의 문화교류와 함께 그 당시 삼국 시대인의 날개관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예가 되는 것이다⁷¹⁾. 특히 이 155호분과 고구려 고분과의 관련은 이 고분에서 출토된 漆器畫와 彩色畫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소재가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따오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 하다⁷²⁾. 즉 騎馬人物圖와 鳳凰圖, 麒麟圖, 獸首鳥身圖 등이 그 계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高句麗 고분벽화 뿐 아니라 南北朝시대의 中國, 高句麗, 百濟, 新羅 등 東北아시아 문화권의 모든 나라에 공통된다. 三國時代의 高句麗 美術이 주제면이나 양식적인 면에서 古新羅의 畫蹟에 미친 영향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충분히 언급하였다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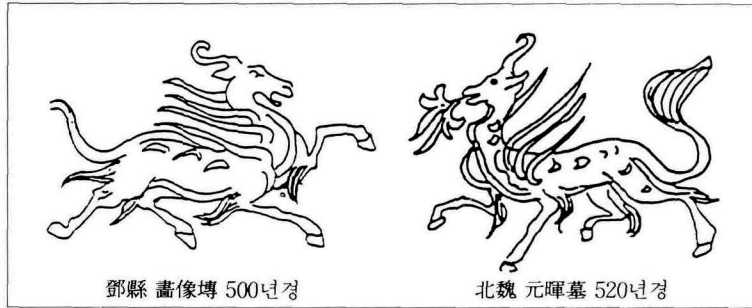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그림이 쌍으로 표현된 점 또한 중요하다. 障泥의 성격상 실용적인 장니가 아니라 副葬用이었을 것이며, 또 다른 장니가 함께 출토된 것으로 보아 특별히 만든 부장용 임이 더욱 분명하다⁷⁴⁾. 鳳凰을 鳳과 凰으로 나누어 두 마리를 표현하 듯 麒麟도 麒와 麟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추세였다. 똑같은 그림이 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은 이 장니화가 麒圖와 麟圖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71) 무령왕릉의 석수와 천마총의 날개 표현을 남북조시대의 유익수의 날개를 연결시켜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伊藤秋男, 「慶州天馬塚出土の障泥にみられる 天馬圖と唐草文」, 『考古學叢書』, 上卷, pp. 513~548. ; 敬三郎, 「感恩寺西塔舍利具の四天王像」, 『佛教藝術』 188호, 1990년 2월, pp. 70~79.

72) 김기웅은 『한국의 벽화고분』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린도를 설명하면서 천마도의 수법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며 천마도의 고구려 화공의 기술에 힘입는 바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었으며 천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 이은창, 「新羅 馬刻紋 土製品과 伽耶鎧馬武人像 土器-古代 韓國人の 騎馬風習과 神馬思想과 關聯하여」, 『新羅伽耶文化』 11집, 1980. ; 경주 155호분과 고구려와의 남북교류는, 김원룡-안휘준 공저, 『新版韓國美術史』(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 55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73) 秦弘燮, 『三國時代의 美術文化』(同和出版公社, 1976)에서 七章과 八章에서 「三國時代 高句麗美術이 百濟新羅에 끼친 影響」, pp.183~318에 建築, 彫刻, 工藝, 繪畫 등에 걸쳐 상세히 연구되었다.

74) 문화재관리국, 『천마총발굴보고서』, p. 182.



〈실측도 2〉

이와 가장 유사한 中國의 例를 찾아본다면 앞서 이미 언급한 6세기초 陵墓인 河南省 鄧縣의 畫像塢에 표현된 麒麟圖(圖 13)와 526년에 제작된 北魏 元暉墓誌의 麒麟圖(圖 17)라 할 것이다. 먼저 鄧縣의 화상전에는 우측 하단에 ‘麒麟’이라는 銘文이 있어 당시의 麒麟형태를 명확히 알게 된 중요한 자료인데, 그 모습이 155호분의 麒麟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뒤로 길게 뻗은 뿔, 앞발 하나를 내밀고 뒷발 하나만을 뒤로 한 달리는 자세, 갈기의 표현, 몸에 나타난 반점, 앞 가슴에 그어진 줄무늬 등 유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北魏 元暉墓誌의 麒麟圖는 뒷다리에 표현된 갈기, 몸의 군데군데 표현된 반월형의 반점, 斑點표현 위치, 그리고 당시에 일반적인 神獸의 날개인 갈고리 모양의 氣翼형의 날개 등에서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가슴선을 따라 一條의 선이 표현된 것도 동일한 표현이다.(실측도 2) 155호분에서 출토된 자루술과 세발술 등 여러 부장품에서 六朝와의 영향관계가 언급되듯이 당시 신라고분 문화의 고구려, 백제 그리고 南北朝의 회화양식의 교류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상에서 경주 155호분의 柏樺樹皮障泥畫에 그려진 동물이 ‘天馬’가 아니라 麒麟일 가능성을 여러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麒麟의 조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세부적으로 뿔의 표현, 갈기의 표현, 기익형의 날개표현, 몸체의 斑點, 다리에서 뻗어나오는 雲文모양의 갈기, 입에서 뿜어내는 神氣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거의 같은 모양의 그림이 두 장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 시대 기린표현의 한 특성으로 天馬보다는 麒麟일 가능성이 훨씬 농후한 것이다.

6세기초로 추정되는 신라의 경주 155호분보다 先行하는 시대의 고구려, 中國의 麒麟美術 展開 및 그 특징이 비교 고찰될 때 新羅 麒麟美術의 등장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며, 서역문화 75)의 대표적 산물로 이해되어 왔던 천마도로서의 「麒麟圖」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75) 이난영, 『경주와 실크로드』(국립경주박물관, 1991), p. 5.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삼국시대의 천마신앙이나 말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혀둔다. 박혁거세 탄생설화 속의 백마와 연결되어 온 점 등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⁷⁶⁾. 위의 고찰이 결코 신라문화의 北方的 성격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린이 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회화에 나타나는 그림양상은 서방적이거나 북방적이거나 보다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상통하는 바가 많고 또한 당시의 中國 南北朝의 영향이 간취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그 당시 남북조와의 활발한 대외 교섭 상황을 살펴보아도 충분히 주지되는 바이다⁷⁷⁾. 이 기린도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이상

1971년 公州 松山里에서 우연히 발견된 武寧王陵 羨道 中央에 머리를 입구로 향하여 놓여 있었던 높이 30cm, 길이 47.3cm, 폭 22cm의 이 石獸는 凝灰岩製이며 뭉뚱한 입을 벌렸고 코는 크나 콧구멍은 없다.(圖 18) 높은 鼻梁이 등 뒤까지 계속되며, 등에는 隆起가 네 곳에 있고 맨앞의 머리 위에는 철뿔이 패어진 흠에 꽃혀 있다. 동체 좌우에는 前·後脚에 날개가 圖案처럼 浮刻되었다. 우편 후각은 발견 당시 이미 절단되어 있었다.⁷⁹⁾ 네 발의 달려들 듯한 자세, 날개의 모습, 뿔의 형태 그리고 등의 움기 등에서 당시 南朝 皇帝陵 앞에 배치된 石麒麟을 기본 도상으로 하고 있어,⁸⁰⁾ 이 석수에 대한 철저한 양식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성격 규명을 하여 기린에 대한 기록이 없는 백제시대의 한 단면을 메워보고자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 석수의 입에 朱漆이 되어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이 朱漆과 같은 것이 武寧王陵의 등간으로 쓰인 백자가 놓여 있었던 벽감에도 칠해져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불

76) 金富軾/李丙燾 譯註, 『三國史記』(을유문화사, 1977), p. 2.

一然/이민수 역, 『三國遺事』(을유문화사, 1983), p. 63.

77) 徐榮洙, 「三國과 南北朝交涉의 性格」, 『東洋學』 11집, 1981, pp. 167~170, pp. 171~173.

78)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에서 김원룡과 임동권은 각각 전자는 고구려벽화와 후자는 민속학적 측면을 고려 하면서 6세기초 설을 지지하고 있다.(p168, 176) 智證王法興王 兩代는 古代國家의 專制의 支配體制가 完成되었고 이러한 體制의 內的 整備 위에서 眞興王은 활발한 征服活動을 전개하는 한편 中國과의 通交에도 積極性을 띄워 南北兩朝에 獨自의 使臣을 派遣하여 外交自主權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155호분의 기린에 대하여도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양식적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9)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73), p. 46.

80) 백제는 동성왕, 무령왕대에 들어와 南朝의 齊, 梁과 활발히 교섭하였다. 특히 무령왕대는 주로 梁과의 교섭으로 王2년(502)의 冊封을 비롯하여 王22년(522)까지 4차례 使節을 派遣하고 있다. 南朝 陵墓 石獸의 類型은 크게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우선 麒麟(天鹿)과 辟邪(獅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구분은 신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前者의 경우에는 皇帝陵에만 가능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王이나 太子의 墓에 사용되었다. 南朝 陵墓의 대부분은 江蘇省 南京市와 丹陽縣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32기 중에 南京市에 19기(南京 10기, 江寧縣 9기), 丹陽縣에 12기가, 句容縣에 1기가 있다. 이 예들은 時代的으로 區分한다면 宋나라 1기, 齊나라 9기, 梁나라 14기, 陳나라 1기, 失名墓 7기가 된다. (林樹中, 「魏晉南北朝의 雕塑」, 『中國美術全集-彫塑篇 3, 魏晉南北朝의 雕塑』, 人民美術出版社(北京, 1988), p. 22.)

은색을 이용하여 副葬하는 것은 東洋의 보편적인 習俗인데, 합리적인 해석은 그것이 피를 대신한다는 것이다⁸¹⁾. 붉은 색은 辟邪의 色 또는 생명의 색으로 믿고 人骨에 朱漆하여 死者의 재생을 祈願하기도 하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人骨에 塗朱한 발견 예는 없으나 埋葬施設物엔 古墳의 내부 주체에 朱丹 등을 칠하는 鎮魂儀禮가 자주 행해졌음을 보이고 있다⁸²⁾ 83). 新羅 壺杆塚의 木棺片에는 黑漆 위에 다시 赤色을 발랐으며, 飾履塚에는 棺材의 面에 丹(酸化鐵)을 칠한 것이 발견되었다. 155墳의 木棺은 내면에 朱를 칠하고 金箔으로 장식하였다⁸⁴⁾. 武寧王陵 出土 王妃의 頭枕에도 朱漆을 하고 있으며, 木製 鳳凰頭 1쌍도 頭頂中央에서 뒤로 뺀 깃에는 각각 朱漆을 하고 있다. 墳墓의 입구에서 石獸의 입에 칠해진 붉은 색은 모든 惡鬼를 除魔하는 성격으로 파악된다. 원래의 墓前 石獸의 技能에다 朱漆까지 한 것은 百濟의 독자적 표현으로 보인다.

武寧王陵 石獸의 머리에는 鐵制의 뿔이 꽂혀 있다. 쇠로 만들어진 뿔의 끝단은 한쪽으로 휘어진 상태로 있으며, 두께가 2 - 3mm 가량 되는 철판을 오려서 만들었는데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다. 머리에서 등 뒤로 중간쯤까지 길게 연장되어 있고, 평평한 鐵板의 윗부분에 隆起가 있고 가늘어진 끝에는 휘어지 듯이 둥근 원형으로 끝나고 있다. 가장 비교가 되는 뿔은 함께 출토된 銀盒과 大刀에 표현된 용뿔과 같이 세 번의 隆起와 끝에서의 말리는 듯한 원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中國의 畫像塼에 표현된 麒麟 등 瑞獸의 경우도 유사한 뿔을 가지고 있는데, 龍의 뿔을 갖다 붙인 듯하다. 물론 中國 황제무덤 앞의 石麒麟에도 뿔의 중간에 세 번의 隆起가 있는 점은 같이 나타나고 있다. 陳나라 天康 元年(566)에 죽은 文帝 陳偁의 永寧陵 석기린의 머리뿔을 보아도, (圖 19) 이 당시 瑞獸의 뿔의 표현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뿔 가운데에서도 靈獸 중의 靈獸인 용의 뿔을 뽑아 놓은 것은 이 石獸를 더욱 기괴하고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

뿔과 아울러 神獸로서의 속성인 날개의 표현은 중국에서도 두 계통이 있으며 그 하나는 氣翼形(雲翼形)이며 또 하나는 사실적으로 새의 날개를 표현한 鳥翼形이 있다. 武寧王陵의 石

81) 1만 8천여년전의 山頂洞人의 墓地에서 屍骨 주위에 赤鐵鏽의 홍색분말이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것은 양소문화와 그 후의 묘지에서 흔히 발견되며, 뒤에 오면서 나무관을 사용하면서 부터 棺의 안쪽에 붉은 칠을 하여 사람의 몸에 뿌리는 홍색분말을 대신하게 되었다.(許進雄/홍희 역, 『중국고대정신』(동문선, 1991), p. 373.)

82) 김기웅, 「고분에서 엿볼수 있는 신라의 장송의례」, 『신라 종교의 신연구』, pp. 268~269.

83) 또한 북방민족이 맹서할 때 말을 죽여 그 생혈을 마시거나 혹은 입에 바르는 插血儀式은 이미 戰國時代에 황하유역으로 전해졌다고 한다.(辛鐘遠, 「6세기 초 신라의 희생례」, 『진단학보』 70, 1990, p. 7.)

84) 金基雄, 위와 같음.

獸는 氣翼型을 따르고 있다. 武寧王陵 石獸의 날개와 가장 유사한 남조의 석수는 永泰 元年(498년)에 죽은 齊나라 明帝 蕭鸞興安陵의 石麒麟이다.(圖 20) 날개처리, 두꺼워진 목의 표현 그리고 앞와 코의 두드러진 표현과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앞모습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당시 백제의 날개표현이 기익형인 것은 夫餘郡 窺岩面 外里 出土의 무늬 전돌을 보아도 선명하게 드러난다.(圖 21) 7世紀初로 보이는 이 산수문전은 안정된 대칭구도, 岩山과 土山の 명확한 구분, 거리감과 공간감 등 여러 요소들이 백제 산수화의 진면목을 엿보게 한다⁸⁵⁾. 여기에서 圭山 꼭대기에 우뚝 서 있는 鳳凰의 날개 표현이 비록 工藝圖案이기는 하지만 氣翼型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 같이 出土된 鳳凰文 전돌의 경우도 날개를 氣翼型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령왕릉 石獸의 등에는 筋骨처럼 보이는 4개의 隆起가 있는데 발굴보고서에는 그것을 鞍具의 覆輪 같은 隆起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동물의 筋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筋骨의 표현은 中國 南朝 石獸들의 공통된 표현양식으로 예를 들어 永泰 元年(498)에 죽은 齊나라 明帝 蕭鸞興安陵의 石麒麟⁸⁶⁾의 뒷모습을 보면(圖 22) 百濟에서 이를 받아들여 간략화, 도식화시킨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武寧王陵의 이 石獸는 그 기본적 개념을 중국에서 皇帝陵 앞에만 세울 수 있는 石麒麟을 모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능묘 앞 석수를 연도에도 설치한 점, 뿔을 鐵製로 꽃은 점, 입에 칠해진 朱漆 등은 百濟 특유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石獸는 鎮墓獸의 형태에서 그 원류를 살피기 보다는 陵墓前 石獸에서 그 源流를 찾을 수 있다⁸⁷⁾. 그러나 전체적인 형태나 조각수법으로 볼 때 엉성한 감은 같은 왕릉에서의 다른 출토품의 높은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뿔의 표현도 독자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돌로 뿔을 만들어야 하는 기법상, 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한다. 다리의 표현에 있어서도 무언가 표현할려다만 듯한 상태로 역동적인 나아가려는 사지를 나타내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대로 둔 것 같다.

85) 安輝濬, 『韓國繪畫의 傳統』(문예출판사, 1988), p. 63.

86) 여기에서 굳이 이 石麒麟을 인용한 것은 뒷모습 세부가 가장 잘 나왔기 때문이다.

87) 岡内三眞, 「百濟=武寧王陵と南朝墓の比較研究」, 『百濟研究』 제11집, 1980, pp. 1~55에서 南齊의 景帝(蕭道生, 478年頃歿)의 陵墓前 石獸와 비교하고 있다.

IV. 三國時代 麒麟像의 特徵과 變遷

1. 三國時代 麒麟像의 特徵

高句麗 古墳壁畫에 보이는 麒麟은 四神과 마찬가지로 전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조형신앙 되었고, 이러한 기린의 상징적 의미는 사후세계의 인도자·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⁸⁸⁾ 이렇게 고구려 기린 중 절반이 그것도 전반기의 기린이 사신도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표현되는데, 그 사상적 배경으로는 四靈信仰이 四神신앙으로 대체되면서 오령의 정령으로 그리고 사령의 우두머리로 신앙되었던 기린의 경우 백호로 대체되었고 그리고 봉황의 경우는 주작으로 대체된 것과 관련하여 볼 수 있다⁸⁹⁾. 즉 四神으로 대체되기는 했으나 기린과 봉황은 여전히 고대인에게 숭상되었을 것이므로 고구려 고분벽화나 또는 중국의 경우 四神의 위치에 기린이 함께 묘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四神信仰이 우세하였던 고구려 후기에 가서는 기린이 사신의 위치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 麒麟의 형태표현은 時代에 따라 그 樣相이 뚜렷이 구분되는데 즉 5세기 중엽을 전후로 사슴형에서 말과 사슴의 혼합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상적 변화는 중국의 기린표현 변천을 살펴보아도 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漢代의 사슴형 기린이 남북조시대에 들어서면 말과 사슴의 혼합형 기린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슴형에서 말로 변화되는 이면에는 그 만큼 고대사회에서 말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달리는 자세, 색채 등에서 동시대의 중국 기린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훨씬 더 고구려적인 역동성과 회화성을 느낄 수 있다.

신라의 경우에는 무덤의 성격상 고분벽화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신라 고분미술에서 드러나는 기린의 표현은 대부분 무덤의 부장품에 보이고 있다. 마구장식이나 식리 또는 장니화에 표현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신라의 고분미술에서는 사슴형 기린은 보이지 않고 바로 말과 사슴의 혼합형 기린이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소재와 제제의 표현양식상 신라의 자체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당시 고구려나 백제 그리고 중국 남북조와의 대외교섭의 영향도 간취되고 있다. 그 중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린 소재를 마구장식, 식리 등에 표현한 것은 신라인의 높은 금속세공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며,

88) 柳涵, 「鄧縣畫象塼墓的時代和研究」, 『考古』, 1957, 第5期, pp. 255~263.

89) 渡辺素舟, 『中國古代文樣史「下」』(東京, 雄山閣, 1976), pp. 206~207.

특히 155호분의 자작나무장니에다 기린을 표현한 것은 신라인만의 독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백제사에서는 아직 麒麟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무령왕릉의 석수가 발견됨으로써 백제시대에도 기린신앙이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석수의 네 발의 달려들 듯한 자세, 날개의 모습, 뿔의 형태 그리고 등의 융기 등에서 당시 南朝 皇帝陵 앞에 배치된 石麒麟을 기본 도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날개표현에 있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함께 기억형의 날개를 표현하고 있어 그 당시 한반도의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공통된 날개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석재로 뿔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나뭇대로의 鐵製로 고안하여 꽃은 점, 입에 칠해진 벽사적인 朱漆 등은 百濟 특유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인다.

2. 三國時代 以後의 麒麟像

1) 말을 닮은 麒麟

사슴에서 점차 말로 변해가던 기린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 완전한 말의 모습을 띠게 된다. 중국의 경우도 隋唐時代가 되면 기린은 말모습을 하게 된다. 이 당시 기린의 모습이 말로 변화하는 것은 그 만큼 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린과 말과의 관련성은 기린이 태어난 배경에서도 드러난다. 즉 ‘毛犢은 應龍을 낳고 應龍은 建馬를 낳고 건마는 麒麟을 낳고 기린은 모든 짐승을 낳았다. 대체로 털이 있는 것은 모든 짐승으로부터 태어난다.’⁹⁰⁾고 한다. 麒麟의 조상이 말이 되고 있는 것이다⁹¹⁾. 또한 『太平御覽』의 獸部를 살펴보면 麒麟의 漢字가 말馬邊의 ‘騏驎’으로 씌여져 있다. 그리고 『說文』의 「麒麟條」에는 ‘麒麟仁獸也. 馬身牛尾一角’이라 하여 기린의 몸체가 말(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모양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의 麒麟紋와당이 있다. 기린의 몸체가 말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圖 23) 와당에 표현된 麒麟紋은 모두 辟邪의 뜻을 지닌 吉祥의인 의미로 瓦博에 채용된 것 같다.⁹²⁾ 이러한 기린문와당은 창림사지, 皇龍寺址, 南潤寺址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종류는 雙麟紋과 單獨麒麟紋으로 나뉜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唐代에 제작된 正倉院 소장의 紅牙撥鏤撥의 「麒麟圖」가 있는데(圖 24) 완전한 말의 몸을 빌리고 있다. 상아로 만든 撥에다 붉은 색으로 염색한 다음 여러 가지 文樣을 彫刻하였

90) 李錫浩 譯, 『淮南子』(世界社, 1992), pp. 110~111.

91) 孫卿子曰「麟嚙身牛尾鹿蹄馬背」라 하였다.

92) 김성구, 「統一新羅時代瑞鳥紋圓瓦當小攷」,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문집』(동천문화사, 1984),

다. 거기에다 靑, 綠, 黃의 색을 칠하였다. 一面에는 山岳紋과 그 위에 麒麟을 그려 놓았고, 麒麟의 주위에는 花草를 시문하였다. 麒麟의 날개는 氣翼型으로 위로 뻗어올라 휘날리고 있다. 고분미술이 아닌 와당이나 장식적인 撥에다 이러한 麒麟紋을 시문한 것은 단순한 장식적인 主目的과 前代의 祥瑞보다는 약한 吉祥적인 意味는 약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신수로서의 '麒麟' 본래적인 의미는 상실하고 길상적문양으로서 장식적 형태만 남게 되는 것이 前代와는 다른 이 당시 麒麟의 또 다른 현상인 것이다.

2) 龍型 麒麟⁹³⁾

기린의 형태는 그 시대에 가장 숭상되는 동물과 관련하여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 그 시대 사람들의 조형사상과도 연관시켜 그 형태가 변화함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龍의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린은 점차 용의 몸을 빌리고 있다. 고려시대의 기린 모습을 살펴보면 말의 몸, 또는 사슴의 몸, 사자의 몸 등 여러 맹수의 몸을 빌리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용비늘을 전신에 덮어 씌우는 것이다. 明 徐渭의 「麟」에 관한 글에서도 기린이 태어나면서 오색 서기가 가득한 데, 몸에는 龍鱗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⁹⁴⁾, 이 당시 기린의 변화를 문헌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熙寧년간(1069-1077)에 제작된 『營造法式』⁹⁵⁾에 드러난 麒麟의 모습이며(圖 25), 우리나라의 경우는 靑磁麒麟鈕蓋香爐(圖 26)이며, 조선초기의 예로는 경기도 楊州郡 檜巖寺址 부도의 하단기단에 부조되어 있는 기린이 있다⁹⁶⁾.(圖 27)

조선시대에 이르면 완전한 용의 모습을 도용하게 된다. 단지 구분하자면 다리가 길짐승의 다리라는 차이일 뿐이다. 이러한 麒麟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원군이 찾다는 기린흉배가(圖

93) 용형 기린은 삼국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린의 형태와 개념을 잡기 위하여 간략히 기록한다. 「통일신라시대이후에 나타나는 기린미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에 보다 상세히 발표하고자 한다.

94) 『欽定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禽蟲典 第五十七卷目錄 麒麟部藝文二詩
“天光如電 一時輒黑 五色瑞氛郁如霞……麟之遍體及頭尾四蹄並是龍鱗”

95) 書名. 모두 34권으로 이루어졌으며, 宋의 李誠가 칙명에 의해 찬함. 初修는 熙寧 중에 이루어졌고, 哲宗 때 다시 重修되었다.

96) 강원도 양주군 회암시지에는 여러 개의 부도가 있으나 이 부도는 따로 절 입구 오른쪽에 독립된 부도를 일컫는다. 이 浮屠는 전형적인 8각원당형을 따르며, 지대석부터 기단부가 평면 8각이며 탑신석만이 구형이고 그 위의 옥개석은 8각이다.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지대를 구축하고 그 위에 8각의 기단부 괴임석을 놓았는데 각 측면에는 운문 속에 飛龍과 麒麟을 조각하였다.

28) 있는데⁹⁷⁾, 『經國大典』을 살펴보면 대군의 흉배에만 麒麟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⁹⁸⁾ 조선후기에는 왕릉 건릉에는 석기린을 설치하였고 임금의 御駕 그리고 궁정에서 사용하였던 儀仗旗에도 麒麟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바로 『三才圖會』⁹⁹⁾(圖 29)와 『古今圖書集成』¹⁰⁰⁾(圖 30)에 나타나는 기린의 모습을 통해 明과 淸代의 기린상을 비교할 수 있다.

결 론

고대신앙의 한 대상으로 생겨나 超自然的이며 強力한 힘의 象徵으로서 崇拜되기 시작했던 麒麟은 現實的인 對象이 아니라 다분히 幻想的이고 神秘的이며, 觀念의 産物이었던 만큼 時代에 따라 象徵意味를 달리하고 있으며¹⁰¹⁾, 그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념과악이 용이하지 않다. 동물신화가 인간을 지배하고 또한 그 영향력이 지대했던 기린미술의 초기표현 단계에서는 ‘美術品’으로서가 아니라 神獸 그 자체로 또는 오행의 우두머리로 표현·숭배되었다. 四靈의 우두머리로 숭배되던 기린은 사후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자로서, 死者를 死後世界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神人이나 仙人이 타고다니는 부속물로서 나타나는 등 분묘미술 품에서 다양한 역할과 모습으로 나타난다. 墓室의 壁畫에 있어서는 天界를 나타낸 天井과 地上의 생활을 나타낸 벽면의 중간인 천정 받침석에 주로 나타난다. 또한 사신신앙이 성행하기 이전단계에서는 사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동물로 숭앙되고 위치도 꽤 표현된다. 이러한 기린의 성격을 크게 오행의 정령, 사후세계의 인도자·수호자, 덕과 인의 상징, 장수와 죽음의 예고, 기린의 짝 봉황, 백린의 중요성 등으로 파악하여 보았다.

실제적으로 뚜렷이 명문이 있거나 년대가 밝혀진 작품을 중심으로 麒麟의 형태과악을 하여

97)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p. 332. 단종 2년(1454) 6월에 梁誠之에 의해 흉배제도가 거론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문·무관의 품계별 흉배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 大君은 麒麟을 사용하게끔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종의 生父인 興先大院君은 고종 32년 4월 그의 기린 흉배를 龜胸背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98) “大君麒麟 王子君白澤 文官一品孔雀, 二品雲鶴, 大司憲獬豸, 堂上三品白鶴, 武官一品虎豹, 堂上三品熊羆”, 端宗實錄 卷十二, 二年十二月條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99) 『三才圖會』中國 明나라 때에 나온 일종의 백과사전. 명나라 王琦의 저술. 1607년의 自序가 있고, 후에 그 아들이 속간함. 여러 서적의 圖譜를 모으고, 天, 地, 人의 삼재에 관한 사물을 14부분으로 나누어 그 그림에 의하여 사물을 설명했음.

100) 類書의 하나. 중국 명나라의 永樂大典에 준거하며 18세기초의 청나라 康熙帝 만년에 편집을 시작하여, 雍正帝 때에 완성되었음. 6,109부, 전 1만권.

101) 李澤厚/尹壽榮 역, 『美的歷程』(동문선, 1991), p. 92.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사슴뿔은 기린, 말뿔은 기린, 그리고 용뿔은 기린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린의 형태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시대적인 조형사상의 多面性과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감성과 종교사상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러한 기린의 형태변화는 각 시대마다의 문헌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변화를 정리하여 보면 <圖表 4>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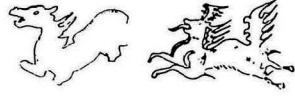
또한 기린의 표현에 있어 특이한 점은 날개이다. 이것은 또한 동양미술과 서양미술의 날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만물생성의 원리를 ‘氣’로 파악했던 東洋 古代人에게는 하늘과 땅을 이어 주는 힘을 날개로 보고, 날개 또한 ‘氣’와 동일시하였다. 그리하여 동양에서는 서양의 사실적인 날개표현과는 달리 氣翼形의 날개조형 전통이 있었으며, 그후 鳥翼型이 수입되면서 氣翼型, 鳥翼型, 混合型의 세 가지 날개형태가 조형되었다. 동양과 서양 둘 다 유익수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날개의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서양에서는 羽毛까지 표현하는 매우 사실적인 날개인 반면, 동양에서는 날개형태가 渦型 또는 巴型 등의 상징적인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고분미술품에 나타난 대부분 기린의 날개표현을 화염문 또는 구름문 같은 氣翼型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高句麗 古墳壁畫에 보이는 麒麟은 四神과 마찬가지로 전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조형신앙되었고 전기에는 사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조형되었다. 그 상징적 의미는 사후세계의 인도자·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麒麟의 형태표현은 時代에 따라 그 樣相이 뚜렷이 구분되는데 5세기 중엽을 전후로 사슴형에서 말과 사슴의 혼합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상적 변화는 중국의 기린표현 변천을 살펴보아도 같은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달리는 자세, 색채 등에서 동시대의 중국 기린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훨씬 더 고구려적인 역동성과 회화성을 느낄 수 있다.

신라 고분미술에서 드러나는 기린의 경우는 대부분 무덤의 부장품에 표현되고 있다. 마구장식이나 식리 또는 장니화에 표현된 것이다. 기린도를 통하여 그 당시 국제문화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올바른 도상해석을 통하여 지금까지 동서문화교류의 대표적 산물로 인식되어온 경주 155호분의 障泥畫의 주제인 ‘天馬’가 ‘麒麟’이라는 새로운 견해도 제시하였다. 마구장식, 식리, 자작나무 장니에다 표현한 점은 신라인만의 독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 무령왕릉의 석수가 발견됨으로써 백제시대에도 기린신앙이 있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 석수의 네 발의 달려들 듯한 자세, 날개의 모습, 뿔의 형태 그리고 등의 융기 등에서 당시 南朝 皇帝陵 앞에

배치된 石麒麟을 기본 도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뿔을 鐵製로 고안하여 꽃은 점, 입에 칠해진 벽사적인 朱漆, 연도에다 설치한 점 등은 百濟 특유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인다.

美術史研究의 필수과제인 정밀한 작품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한 韓國 古代墳墓 美術品에 나타난 기린은, 보다 정확한 도상해석을 가함으로써 기린미술의 綜合的 性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기린이라는 단일 주제를 古代社會 속에서의 기린의 기능과 성격을 파악해 보았으며, 자료가 부족하고 후대의 변용된 모습으로 전해지는 사료들 속에서 한국고대의 종교·사상의 일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단일주제의 파악은 다른 동물들과의 상호 조합관계 등을 면밀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기린미술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작업은 다음 논문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구분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사슴	중국	 <p>漢 麒麟碑 江蘇省徐州出土 沂南畫像石</p>			
	한국			 <p>三室塚 舞踊塚</p>	
사슴+말	중국				
	한국			 <p>金鈴塚出土 麒麟紋馬具裝飾 長川 1 號墳</p>	
말	중국				
	한국				
말	중국				
	한국				

〈圖表 4〉 고대 고분미술의 기린계보

6세기

7·8·9세기



鄧縣畫像博



元暉墓誌



永寧陵 石麒麟



155號墳 障泥畫 武寧王陵 石獸



江西大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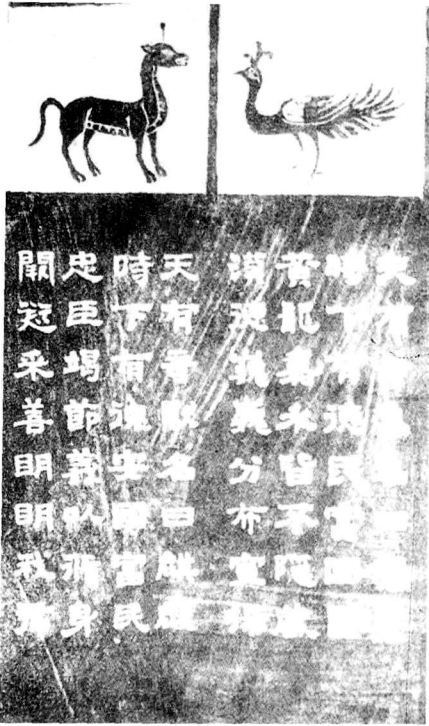
紅牙撥鏤撥 唐



麒麟 唐



麒麟紋 瓦當 통일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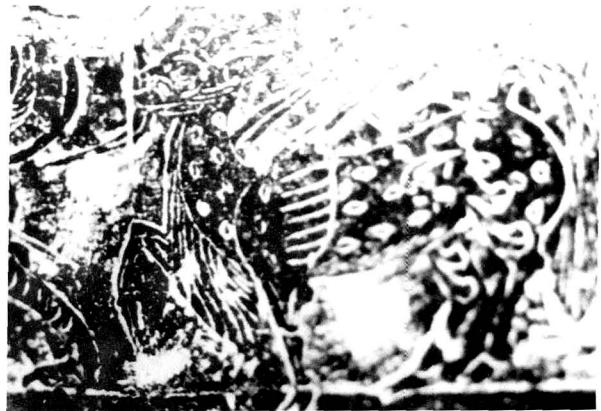
〈圖 1〉 山陽麟鳳碑, 漢 永建 元年(A.D 126년), 『金石錄』권4, 『石索』권4에 수록



〈圖 2〉 麒麟碑 漢 『隸續』권5, 『石索』권4에 수록



〈圖 3〉 麒麟圖, 三室塚 第二室 北面, 天井部 4층 받침석, 고구려 5세기, 집안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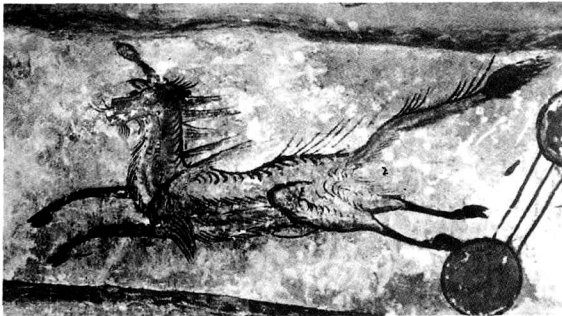
〈圖 4〉 麒麟圖, 漢, 沂南 化상석묘



〈圖 5〉 麒麟圖, 안악 1호분, 고구려, 황해도 안악군 대추리



〈圖 6〉 彩繪鳥獸魚紋漆 상자, 三國·吳, 高 4.8cm, 길이 25.4cm, 두께 16.3cm
安徽省馬鞍山市 朱然墓出土, 安徽省文物考古研究所藏



〈圖 7〉 麒麟圖, 舞踊塚, 女室 天井 東쪽, 고구려, 5세기



〈圖 8, 9〉 麒麟圖, 集安의 長川 1號墳, 前室 天井部 東側, 고구려, 5세기 중엽



〈圖 10〉 麒麟圖, 고구려 6세기 전반, 중국 길림성 집안현 대왕촌



〈圖 11, 12〉麒麟圖, 玄室 天井 第3段,
고구려 6세기 말,
평안남도 남포시 삼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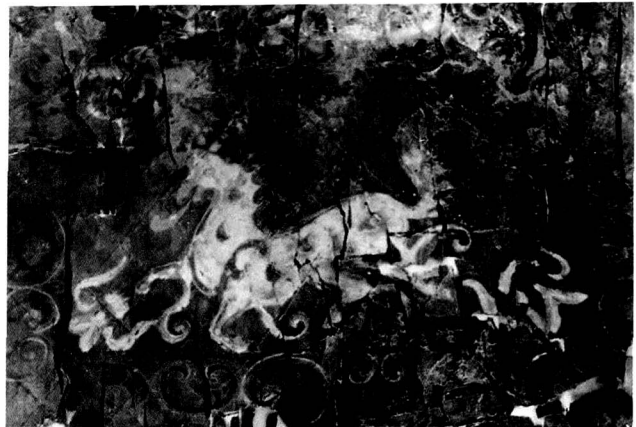
〈圖 13〉「麒麟」銘 畫像塼, 南朝, 500년전후, 鄧縣



〈圖 14〉麒麟紋 馬具裝飾, 경주 금령총 출토,
신라 5세기



〈圖 15〉飾履 怪獸麒麟, 세부, 경주 식리총 출토, 신라 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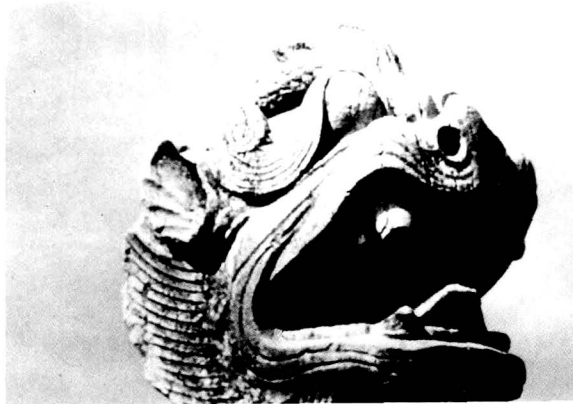
〈圖 16〉障泥畫 麒麟圖, 경주 155호분 출토, 신라 6세기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 17〉元暉墓誌의 麒麟圖, 세부, 北魏. 526년



〈圖 18〉무녕왕릉 석수, 百濟, 523년,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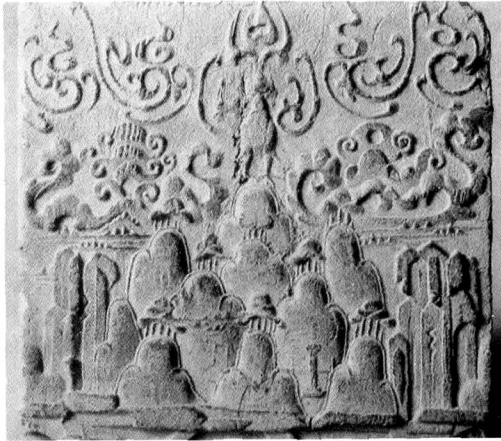
〈圖 19〉文帝 陣蔭의 永寧陵 석기린, 天康元年 566. 陳,
江蘇省 南京市 甘家港 子獅衝



〈圖 20〉石麒麟, 齊 永泰 元年 498, 齊明帝肅鸞安陵



〈圖 22〉(圖 20)의 뒷 부분



〈圖 21〉 산수문전, 백제, 7세기초, 夫餘郡 窺岩面 外里 出土, 夫餘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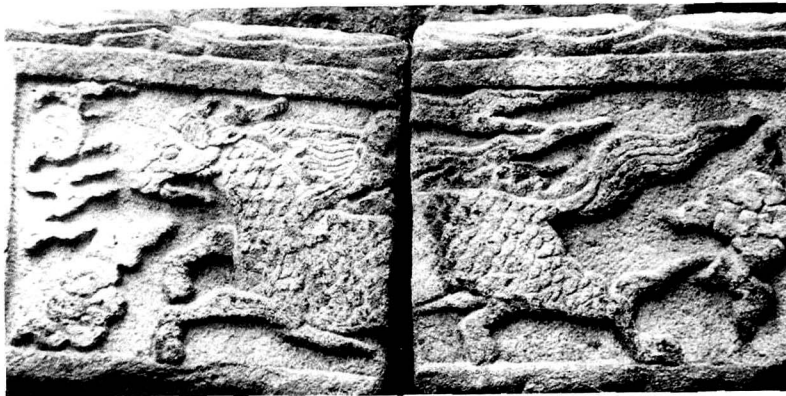
〈圖 23〉 麒麟文와당, 통일신라, 경주국립박물관장



〈圖 24〉 紅牙撥鑲麒麟, (세부, 唐, 象牙, 長 20.0cm, 상단幅 5.7cm, 正倉院 北倉藏)



〈圖 25〉 熙寧년간(1069~10770, 『營造法式』麒麟圖



〈圖 27〉 회암사지부도 하단기단 기린(세부), 조선초기,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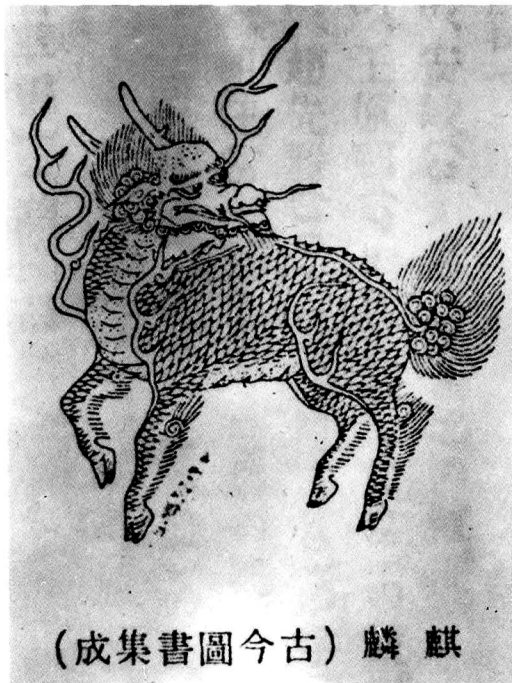
〈圖 26〉青磁麒麟 蓋香爐, 고려 12세기초, 높이 15.4cm, 澗松美術館藏



〈圖 28〉기린홍배, 조선후기, 덕수궁 궁중유물 전시관



〈圖 29〉『三才圖會』麒麟圖 1607년



〈圖 30〉『古今圖書集成』麒麟圖 18세기초